

乾嘉金石學者¹⁾의 俗字研究에 대한 小考

曹泳蘭*

<目 次>

1. 緒 論
2. 乾嘉金石學者의 俗字 연구 實例
 - 1) 石刻俗字와 正字간의 具體的인 考證의 例
 - 2) 當代의 俗字를 考證한 例
 - 3) 古代文獻을 이용해서 石刻資料의 俗字를 考證한 例
3. 乾嘉金石學者 俗字造成의 具體的인 方式
 - 1) 筆劃의 增加
 - 2) 筆劃의 省略
 - 3) 部件의 增加
 - 4) 部件의 減省
 - 5) 偏旁易位
 - 6) 形旁의 增減과 改造
 - 7) 聲旁의 改變
 - 8) 同音代替
4. 結 論

1. 緒 論

墓誌碑帖은 民間文獻으로 풍부한 俗字資料를 保存하고 있으며, 漢字形體 變遷과 正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시대가 오래될수록 古今字意는

* 우송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1) 清代乾嘉考據學者들은 傳統古文獻에 대한 考據學을 治學했는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古文獻에 관한 整理, 考證과 研究를 하였다. 그들의 학문은 文字, 音韻, 訓詁, 目錄, 板本, 校勘, 辨僞, 輯佚, 注釋, 名物典制, 天算, 金石地理, 職官, 避諱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清代의 考據學은 金石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탁본물을 수집하여 '金石錄'을 만들고, 이들 자료를 토대로 經書(經書)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본 논문에서는 건가시기 학자인 王昶, 錢大昕, 畢沅, 翁方綱, 武億, 邢澍, 嚴可均 등의 金石著作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그들을 乾嘉金石學者라 칭한다. 또한 本稿에서는 그들의 著作에서 俗字를 언급한 부분을 考察하고 논해보았다.

변화하고 碑刻文字 자체도 매우 복잡하여 이런 석각자료를 해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俗字의 특징과 구조의 규칙을 인식하고, 俗字의 文字體系를 자세히 아는 것은 碑誌를 정확히 해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碑刻俗字에 대한 연구는 墓誌研究의 중점이 되어왔다. 학자들의 碑刻文字에 대한 輯錄 및 연구활동은 대략 宋代에 시작되어, 많은 연구 업적을 축적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재 논의하지는 않기로 한다. 2)

黃公渚는 《兩漢金石文撰評注》³⁾에서 金石學을 연구하려면 십년의 小學에 대한 소양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乾嘉金石學者들은 金石文獻자료를 연구하는데 있어 小學知識을 운용하여 碑刻文字의 文字形體 변천의 원류를 분석하고, 正字, 俗字등을 고증하였다.

俗字의 定義를 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소 다르지만, 歐昌俊先生은 학자들의 해석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⁴⁾

民間에 유행하는 당시 字書 正體字 필법과 부합하지 않은 글자를 가르키고, 正體字 필법과 상대적인 일종의 비정식 혹은 準正式 字體를 말한다.

또 張涌泉도 俗字에 대해 漢字역사상 각 시기에 正字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로 민간에 유행하는 통속자체라 하였다.⁵⁾

2) 趙之謙의 《六朝別字記》 이후에, 淸光緒年間에 羅振鐸 《碑別字》 五卷, 羅振玉 《碑別字補》 五卷, 또 위의 두 권을 합친 《增訂碑別字》을 발행한 후 羅振玉의 아들인 羅福葆가 《碑別字》一卷을 편집하였고, 그 후 秦公은 상술한 책의 기초위에 《碑別字新編》을 집필하였는데 秦漢에서 民國에 이르기까지 2528개 漢字와 12844종의 別字, 俗體字를 수집하였고, 각 時代의 碑刻俗字의 實際상황을 반영하였다. 근래 학자들의 碑刻俗字에 대한 주요 저작으로는 趙超 《古代墓誌通論》, 張涌泉 《漢語俗字研究》, 歐昌俊, 李海霞의 《六朝唐五代石刻俗字研究》 등이 있고,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程章燦 《讀〈六朝別字記新編〉札記》 및 《六朝別字記新考 — 讀〈六朝別字記新編〉札記四則》, 任昉, 王昕 《〈新中國出土墓誌〉河南〈壹〉別字選編》 등 石刻俗字에 대해 論한 文章은 적지 않다.

3) 黃公渚, 《兩漢金石文撰評注》, 「研究金石之學, 非有十年小學考據之功者不能」, pp.5-7.

4) 歐昌俊, 李海霞, 《六朝唐五代石刻俗字研究》: 「指流行于民間的跟當時字書正體字寫法不合的字(也包含同音代替的字), 是相對於正體字寫法而言的一種非正式或準正式字體」, p.4.

5) 張涌泉, 《試論漢語俗字研究的意義》: 「漢字史上各個時期與正字相對而言的主要流行于民間的通俗字體爲俗字」, 中國社會科學, 1996, p.162.

乾嘉金石學者들의 著作중에 등장하는 俗字에 대한 명칭은 “俗體字”, “俗字”, “碑別體字”, “通用字”⁶⁾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서 俗字의 別稱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解釋하지 않고, 上述한 定義를 수용하기로 한다.

本稿에서는 乾嘉金石學者的 著作에서 보이는 俗字에 대한 考證부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속자연구방식을 분석하고 그 俗字造成에 있어서 具體的인 방식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의 고증뿐 만 아니라 문자연구 자료로서도 의미 있는 金石文獻에 대한 문헌적 가치를 再考하려함이 本稿의 목표이다.

2. 乾嘉金石學者的 俗字연구 實例

1) 石刻俗字와 正字의 具體的인 考證의 例

乾嘉金石文獻에 대한 俗字연구는 漢字楷書의 연구범위에 속한다. 楷書는 漢魏 이후 近現代까지 通行해왔고, 장기적인 사용 과정 중에서 수많은 俗字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매우 복잡한 문자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乾嘉金石學者的 金石 著作중에도 이 方面에 매우 풍부한 文字資料를 보존하고 있다. 그들의 金石著作 중에 보이는 俗字와 正字를 考證한 部分의 代表적인 實例는 다음과 같다.

例一 《高平縣石裏村造橋碑》⁷⁾: 碑文中 別體字는 매우 많다. 예를 들면 年을 𠄎

6) 俗字(俗體, 俗體字)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現代漢語詞典》, 《辭源》, 《辭海》, 《漢語大詞典》, 《大辭典》, 《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 등 辭書에서 ‘俗字’의 訓釋을 正字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 속자의 明確한 개념은 民間과 당시 字書 正體字의 필법과 부합하지 않은 글자를 지칭하고, 正體字에 상대적인 일종의 비정식 字體를 말한다. 俗字는 또한 俗體字, 俗書, 俗作, 俗省, 別體, 別字, 別構字, 簡筆字, 新體字등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歐昌俊, 李海霞 《六朝唐五代石刻俗字研究》 참조.

7)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碑中別體字甚多,如「年」作「𠄎」,「寃」作「寃」,「裏」作「裏」,「那」作「那」,「橋」作「橋」,「碑」作「碑」,「浮」作「浮」,「儼」作「儼」,「傾」作「傾」,「克」作「克」,「苦」作「苦」,「寧」作「寧」,「邑」作「邑」,「競」作

으로, 究을 究으로, 裏을 裏으로, 那을 那으로, 橋을 橋으로, 碑를 碑으로, 浮을 浮으로, 儻을 儻으로, 傾을 傾으로, 克을 克으로, 昔을 昔으로, 寧을 寧으로, 邑을 邑으로, 競을 競으로, 漂을 漂으로, 淚을 淚으로, 樓을 樓으로, 稽을 稽으로, 媿을 媿으로, 斷을 斷으로, 德을 德으로, 欄을 欄으로, 陽朱는 楊朱이고, 首尾은 즉 首尾이며, 모두 別字이다.

例二 《白石神君碑》 8):

碑文中에서 '幽讚을 '幽贊'으로 썼고, '無疆을 '無疆'인데, 이 또한 洪氏가 例로 들지 못한 것이다.

例三 《裴鏡民碑》 9): 代代은 당연히 伐이라 해야 하고, 幕府는 莫府라 썼고, 裴楷는 裴楷라 썼으며, 喪律은 喪律로 썼는데 借用했거나 別體字이다.

例四 《皇甫誕碑》 10): 跋는 당연히 跋이라 써야하고, 橫劍은 槿枒, 枒는 扞로 쓰고, 彈違亂愿, 마땅히 亂라 써야하는데, 糾자이다. 馬獲初封 《廣韻》에서: 속되게 田獵字로 쓴 것은 맞지 않는데, 이는 마치 獵字를 빌려 쓴 것과 같고, 또한 獵字를 빌린 것인데, 모두 別體字이다.

例五 《平百濟國碑》 11)중에서:

旗常은 旂常로 썼는데, 《說文》에서는 旗, 旂를 두 글자로 구분하여, 音義가 모두 구별된다. 이 旗는 旂字로 봐야한다. 이는 바로 通用한 것이다.

例六 《司馬景和墓誌銘》 12):

別體字로 '璠을 '播'이라 썼고, '漁'는 '魚'이라 썼으며, '休'를 '體'로, '龍驤'는 '驪驤'로, '邊'는 '邊'으로, '偉'는 '曄'으로, '往'는 '住'로 썼다.

例七 《魏靈藏, 薛法紹造釋迦像記》 13):

「鏡」, 「漂」作「灑」, 「淚」作「淚」, 「樓」作「樓」, 「稽」作「稽」, 「媿」作「媿」, 「斷」作「斷」, 「德」作「德」, 「欄」作「欄」, 「陽朱」即「楊朱」, 「首尾」即「首尾」之類, 皆其異者., p.83.

8)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一: 「碑以幽讚爲幽贊, 無疆爲無疆, 亦洪氏所未及舉」, p.27.

9) 王昶 《金石萃編》第二冊, 卷四十四, 《唐四》: 「代代當作伐, 幕府作莫府, 裴楷作裴楷, 喪律作喪律或借用或別體也。」

10) 王昶 《金石萃編》第二冊, 卷四十四, 《唐四》: 「跋當作跋, 橫劍槿枒, 枒當作扞, 彈違亂愿, 亂當作亂, 卽糾字. 馬獲初封 《廣韻》云: 俗作田獵字非, 此似借爲獵字, 又借爲獵字, 皆別體字也。」

11) 王昶 《金石萃編》第二冊, 卷五十三, 《唐十三》: 「旗常當作旂常, 《說文》分旗旂爲二字, 音義俱別, 其旗常自是旂字. 此則通用也。」

12)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 《授堂金石跋》, 《金石一跋》券之第三: 「別體字璠作播, 漁作魚, 休作體, 龍驤作驪驤, 邊作邊, 偉作曄, 往作住」, p.57.

13)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 《授堂金石跋》, 《金石一跋》券之第三: 「別體字標作標, 希作帝, 痛作憇, 鹿作麕, 率作學, 棘作羶, 荆作荆, 條作條」, p.62.

別體字인 '標'는 '檣'로, '希'는 '帝', '痛'은 '癩'으로, '鹿'은 '麕'으로, '率'은 '學'으로, '棘'은 '森'으로, '荆'은 '荆'으로, '條'은 '條'로 썼다.

例八 《僧惠造像記》 14):

글자는 別體字가 많은데, '轍'를 '澈'으로, '焚'을 '憤'으로, '變'을 '麥'으로, '因'을 '田'으로, '苑'을 '苑'으로, '號'를 '嗶'으로, '告'를 '吉'로, '龕'을 '堪'으로, '碍'를 '尋'으로, '棘'을 '森'으로, '垣'을 '桓'으로, '同'을 '岡'으로 '永'을 '融'으로 썼다. 古文으로는, '豪'는 形符가 '豕'이고, '惑'는 '心'변을 넣지 않고, '門'은 形符가 두 개인 '門'이고, '表'는 '表'라 쓰며, '崇'을 '嵩'이라 쓴 부류이다. 자세히 보면, 당시의 풍속에 따르지 않았다.

例十 《大齊武平二年歲次辛柳九月十五建》 15)중에서 또한 別體字를 고석하기를:

碑體字로 邊을 邊으로, 長을 長으로, 堪을 龕으로, 列을 烈으로, 狀을 狀으로, 莊을 莊으로, 梁을 梁으로, 淸을 淸으로, 悟을 悟로 썼다. 點획의 증감이 正文보다 많고, 偏旁이 차츰 늘어나서, 실로 字體가 혼란스러운데, 書學이 나쁘게 변화한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

例十一 이외에도 畢沅의 《滎陽太守元寧造象記》 : 16)

마치 古意가 있는 것 같은데, 區를 區로, 潤을 潤으로, 延을 延으로, 蠡을 蠡으로 썼는데, 모두 別字이다.

例十二 畢沅 《大德寺碑》 17):

碑文은 매우 이상하고 오래되어 別體字가 많은데, 예를 들면 之를 之로, 龜를 龜으로, 禎을 禎으로, 庶를 庶으로, 綵를 綵으로 쓴 글자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

例十五 畢沅 《邑義造神碑尊象記》 18):

14)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 《授堂金石跋》, 《授堂金石文字續跋》 卷二: 「字多別體, 以轍爲澈, 焚爲憤, 變爲麥, 因爲田, 苑爲苑, 號爲嗶, 告爲吉, 龕爲堪, 碍爲尋, 棘爲森, 垣爲桓, 同爲岡, 永爲融其與古合者, 如豪從豕, 惑不加心, 門從兩門, 表作表, 崇作嵩之類, 悉有依據, 不墜當時之習」, p.209.

15) 武億, 《假師金石遺文補泉》 卷二, 刊于 《續修四庫全書·史部金石類913》: 「碑體字邊作邊, 長作長, 堪作龕, 列作烈, 狀作狀, 莊作莊, 梁作梁, 淸作淸, 悟作悟, 點畫增損, 卽有乘于正文, 偏旁墨加, 實自亂其名體. 書學之變壞是爲已甚疑」, p.153.

16) 畢沅, 《中州金石記》 卷一, 刊于 《續修四庫全書·史部金石類912》: 「猶有古意, 至寫區爲區, 潤爲潤, 延爲延, 蠡爲蠡, 皆別字」, p.623.

17) 畢沅, 《中州金石記》 卷二, 刊于 《續修四庫全書·史部金石類912》: 「碑文甚奇古而字多別體, 如之作之, 龜作龜, 禎作禎, 庶作庶, 綵作綵之屬不及備舉」, p.632.

18) 畢沅, 《中州金石記》 卷一, 刊于 《續修四庫全書·史部金石類912》: 「此碑亦多別體字. 借長爲長, 從爲蹤, 餘悉如今世俗書寫區爲區, 悟爲悟, 他碑未見」, p.628.

이 碑 역시 別體字가 많은데, 萇字를 長이라 쓰고, 從은 蹤인데, 나머지 부분을 자세히 보니 지금 속자로 攸를 攸로, 悟는 悟로 쓴 것인데, 다른 碑文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例十六 嚴可均跋《伏波將軍石永興等造象記》¹⁹⁾:

別體字는 波를 攸로, 居를 厓로, 錢을 錢으로, 董을 董으로, 縣을 縣으로 썼는데, 역시 드물게 보이는 것이다.

例十七 翁方綱《歐陽率更小楷千文》²⁰⁾ 중에서:

虛舟跋에서 이르기를:附와 付는 예로부터 通用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 碑帖안에는 姤를 垢로 썼고, 研을 妍으로, 祐를 祐로 썼다. 아마도 老年에 집필의 오류일 것이다. 마침 충분히 그 眞意를 알 수 있으니, 감상자는 이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 通用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2) 當代의 俗字를 考證한 例

時代를 구분 짓는 것은 史料나 校勘價值를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작업이다. 또한 金石文獻에는 구체적인 年月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²¹⁾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時代性을 지니고 있는 俗字는 金石文獻의 年代를 斷定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商周시대에는 商周의 俗字, 秦漢시대에는 秦漢의 俗字, 近代 역시 近代의 俗字가 있듯이, 각 시대의 俗字가 있다. 正俗간의 關係는 時間의 추이

19) 嚴可均, 《鐵橋金石記》卷一, 刊于《石刻史料新編25》:「其別體字波作攸, 居作厓, 錢作錢, 董作董, 縣作縣, 亦罕見」, p.19313.

20) 翁方綱《蘇齋題跋》卷上:「虛舟跋云:附與付古通用, 非也. 此帖內以姤爲垢, 以研爲妍, 以祐爲祐, 以瞿爲瞿. 蓋皆老年涉筆之誤. 正足以見其眞意. 觀者勿以此致疑可矣. 豈其通用之謂哉」, p.4.

21) 金石文獻의 辨僞와 斷代를 판단하는 방법을 몇 가지 方面으로 나누어서 考察해보면 석각의 구조특징, 문양, 도안, 명문에 기재된 시대, 석각의 문자서체와 소재한 연대가 부합한지, 석각 명문중에 사용된 異體文字 寫法과 소재한 年代가 서로 부합하는지, 石刻 명문문체 및 내용특징과 소재한 年代가 서로 부합되는지, 석각에서 반영된 重大한 역사적 사건, 인물, 연호, 干支 등 세부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만약 확실하게 출토상황이 기재되었다면 출토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찰하고, 출토지점과 석각명문, 기제가 서로 부합한지에 대한 타당한 해설이 있어야 하고, 비교적 저명한 석각에 대해서는 金石著作중 간행본이 있는지 각종 간행본의 특징, 소재지등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 (참조: 趙超, 《中國古代石刻概論》, p.263.)

에 따라 끊임없이 발생 변화하여 공식적,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모호하고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서, 고서판독에 많은 혼란을 주기도 한다. 乾嘉金石學者들은 俗字의 時代性에 정통하여 金石文獻의 時代를 단정하였는데, 그 實例를 시대별로 나누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魏晉南北朝에서 隋

例一 《造丈八大像頌跋尾》²²⁾:

脩를 濟으로, 像을 像으로 師를 師으로, 捨를 捨으로, 無을 無으로, 罔을 罔으로, 央을 央으로 썼는데, 모두 魏晉시기 俗字이다.

例二 《陽阿故縣村造像記》²³⁾:

오른쪽 碑는 山西 鳳臺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漢陽阿縣이다. 邊은 遍과 같고, 邊이라고도 쓰고, 또 湯이라고도 썼는데, 모두 北朝시기 俗字이다. 혹은 邊이라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例三 《造石像碑文》²⁴⁾:

別體字가 매우 많다. 云仰의 彌元에서 元은 遠이다. 또한 이르기를: 隨心降 障에서 障는 落이다. 또 이르길: 罄茲悲果에서 曠字를 차용한 것이 많다. 六朝때 사람들을 보면, 마치 古字古義에 능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文章이 갈수록 通俗적이되어서 평범하지 않은 글자가 보인다.

例四 《李氏造像頌》²⁵⁾:

일설에는 訊訟이라고 하고, 원래는 訟字라 썼는데, 后人은 頌으로 썼고,

이는 容貌의 頌字를 차용한 것이다. 이는 또 六朝人이 古字古義를 사용한 증거이다.

例五 《九成宮泉銘》²⁶⁾:

22)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其書脩 作濟, 像 作像, 師作師, 捨作捨, 無作無, 罔作罔, 央作央, 皆魏晉間俗字.」, p.74.

23) 嚴可均, 《鐵橋金石跋》卷一, 刊于, 《石刻史料新編25》: 「右碑在山西鳳臺, 故漢陽阿縣也. 邊與 遍同, 又作邊, 或作湯, 皆北朝俗字. 或釋爲邊, 非.」, p.19312.

24) 武億, 《偃師金石遺文補錄》卷二, 刊于《續修四庫全書 史部金石類913》: 「其別體甚多. 然云仰之彌元, 元, 遠也. 又云: 隨心降障, 障, 落也. 又云: 罄茲悲果, 當借爲曠字多也. 見六朝時人, 猶能用古字古義, 今則文章日尚通俗, 不出尋常行用之字耳.」, pp.149-150.

25) 王昶《金石萃編》第一冊, 卷三十一, 《東魏》: 「一日訊訟, 是本作訟字, 后人作頌, 乃借容貌之頌字也. 此又六朝人用古字古義之證矣.」

26) 王昶《金石萃編》第二冊, 卷四十三, 《唐三》: 「碑中 轆作 轆, 通用也. 迢遍作 迢, 別體字.

碑중에서 鞞^鞞는 廖葛라 썼는데, 通用한 것이다. 迢^迢遍은 迢^迢遍이라 썼고, 別體字이며, 丹微는 丹徽라 썼다. 이는 아직 北魏의 구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2) 唐

例一 《歷城縣千佛厓石刻五種》 27):

‘國’字는 《玉篇》, 《集韻》 여러 책에서 보이지 않는데, 이 碑文을 보니 ‘國’은 ‘國’으로 썼는데, 唐初에 이미 이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宋(遼金)

例一 《崇教寺辟支佛塔記跋尾》 28):

辟支迦는 唐 緣覺이라 이른다. 碑에는 插^插를 插^插으로, 灌^灌를 灌^灌으로, ‘无’를 无^无으로 썼는데, 모두 宋代의 俗體字이다.

例二 《似架等題名》 29):

‘架’字는 古字로 ‘矩’이고, 《傳》에는 ‘似矩’이라 썼는데, 아마도 俗體를 따른 것이다. 이 碑文은 篆書이므로, ‘倡架’ 두 글자는 正字에 부합한다.

(4) 元

例一 《集仙宮重建東嶽行祠記》 30):

碑文에서는 ‘靈’을 ‘靈’이라 썼고, 이 俗字 역시 책에 수록되어 있다. 《廣韻》十五《青》에 보면 ‘靈’字가 있고, 《字類》 주석에서는 ‘小熱貌’라 하였다. 《說文》에서는: ‘灰는 形符가 又이고, 形符가 火이다.’ 즉 ‘靈’은 바로

丹微作丹徽 則尚沿北魏之舊習。」

27)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四: 「‘國’字, 《玉篇》, 《集韻》 諸書皆無之, 讀斯刻知以‘國’爲國, 唐初已然矣.」, p.97.

28)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十三: 「辟支迦, 唐云緣覺也. 碑書插爲‘插’, 灌爲‘灌’, ‘无’爲‘无’, 皆末時俗體.」, p.335.

29)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十五: 「架, 古矩字, 《傳》作似矩, 蓋從俗體. 此刻乃篆書, 故‘倡架’兩文悉合於正.」, p.399.

30)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九: 「碑書靈作靈, 此俗字, 亦有所本. 案: 《廣韻》十五《青》有‘靈’字, 注引《字類》云: ‘小熱貌. 《說文》: ‘灰, 從又, 從火. 則靈’即灰之異體. 灰者, 火之餘燹, 故又有小熱之訓. 不知何緣轉爲靈音, 世人遂以同紐借用. 《集韻·青部》却不收靈’字, 殆以其俗體而芟之歟.」, p.498.

‘灰’의 異體이다. 灰는, 불의 잔재를 말하므로, 또한 작은 열이란 해석이 있다. 무슨 이유로 ‘靈’으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지만, 世人들은 ‘紐’와 借用하였다. 《集韻·靑部》에서는 오히려 ‘靈’字를 수록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俗體여서 삭제해 버린 것이 아닐까?

위의 例에서 跋文중에 구체적인 시대의 俗字를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年代에 의하여 跋文을 나누었으므로 그 시대의 俗字를 고증했다고 볼 수 있다. 俗字에 근거하여 金石文獻의 시대를 판별할 때 주의할 점은 俗字의 發生, 消滅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俗字는 여러차례 流轉하여 대중들의 인정을 받은 후에야 後人들이 답습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例를 통하여 乾嘉金石學者가 文獻자료 등에 근거하여 時代性을 가진 俗字를 이용하여 金石文獻의 年代를 분류하고 고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古代文獻을 이용해서 石刻資料의 俗字를 考證한 例

고대의 字典辭書 및 기타 語文著作에는 풍부한 漢語俗字가 기재되고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文獻資料를 이용해서 石刻俗字를 판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차자료인 文獻資料, 寫本文獻, 字書등도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僞變造 및 기록의 오류가 생겨 考證에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판본이라 할지라도 重刊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여건이나 저작자의 의도에 따라 改作되는 사례가 더러 보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金석문헌은 문헌자료보다 신뢰성이 짙는데, 刻字한 뒤에는 改作이 어려운 것이 金석문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乾嘉金石學者들은 金석문헌과 고대문헌자료를 相互 대조하여 俗字의 고증을 더욱 명확히 했다.

例一 《造丈八大像頌跋尾》³¹⁾:

31)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文稱大齊天統三年, 歲在丁亥. 黃氏《中州金石考》以爲天統五年者, 誤. 其訟曰, 訟即頌字. 《說文》: 訟, 爭也. 一曰調訟. 徐氏謂古本《毛詩》, 《雅》, 《頌》字多作訟. 《史記·呂后本紀》: 未敢訟言, 誅之. 《漢書》作誦, 是訟. 頌, 誦三文互通矣. 頌本容貌之容,

문장에서 '大齊天統三年은 丁亥年이다.' 黃氏가 《中州金石考》에서 天統五年이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訟曰'에서 '訟'은바로 頌字이다. 《說文》에서는: '訟은 논쟁하다라는 의미이다,' '칭송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徐씨는 古本 《毛詩》, 《雅》, 《頌》에서 '訟'字로 많이 썼다고 하였다. 《史記·呂后本紀》중: '감히 공언할 수 없어서, 이를 꾸짖는다.'라 했다. 《漢書》에서 '誦'이라 썼는데, 訟, 頌, 誦 세 글자는 서로 통한다. '頌'은 본래 용모의 '容'자이고, 音이 '融'과 서로 비슷하므로, 《武梁碑》에서도 '祝融'을 '祝誦'이라 썼다.

《中州金石考》, 《說文》, 《史記·呂后本紀》, 《漢書》 등 古書에 근거하여 '訟, 頌, 誦'三字가 通用됨을 考證했다. '訟, 頌, 誦'三字는 音同義通으로 예로부터 같이 써왔는데, 古人은 이를 假借라고 불렀다. 그러나 假借字는 결코 우리가 말하는 俗字는 아니다. 왜냐하면 許慎은 그것이 '六書'중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이것은 바로 이러한 用字方法이 이미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 俗字는 同音에 의한 別字를 사용했으나, 正字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假借字와 이런 同音借用에 의해서 이루어진 俗字는 같다고 여기기도 한다.

例二 《謙卦碑跋尾》³²⁾:

오른쪽은 李陽水水의 《易謙卦》이다. '謙'字는 모두 스무 개가 보이는데,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謙', '謙', '謙', '代', '謙'字, 세간에는 많으나 이를 해결할 수 없다. 《漢書·藝文志》에 따르면: '《易》의 미미(嗛嗛)하다, 한번 겸손하면 4가지가 이롭다(一謙而四益)' 顏氏 《注》에서: '嗛字와 謙字는 같다.' 《大學》에서는 '이것은 自謙(겸손한 태도)을 말하는 것이다.' 鄭씨는 《注》에서: '謙은 謙으로 읽는다.' 《荀子》에서: '냄새가 역겨워서 코를 막았다.' 楊倞 《注》에서: '謙字와 같다.' 아마도 謙, 嗛, 慊 세 글자는 오래전부터 모두 통용한 것 같다.

錢氏は 《漢書·藝文志》, 《大學》, 《荀子》 등 古籍에 근거하여, '謙', '嗛', '慊'

音與融近, 故《武梁碑》亦書祝融爲祝誦也。」, p.74.

32) 錢大昕《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右李陽水水《易謙卦》. '謙'字凡二十見, 無一同者. 其以嗛, '謙', '謙', '代', '謙'字, 世多疑之. 案:《漢書·藝文志》:『《易》之嗛嗛, 一謙而四益.』顏氏《注》:『嗛字與謙同.』《大學》:『此之謂自謙.』鄭氏《注》:『謙讀爲謙.』《荀子》:『臭之而無嗛于鼻.』楊倞《注》:『與謙同.』蓋謙, 嗛, 慊三字古皆通用也.」, p.191.

三字가 모두 通用字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例三 《漢鄧陽令曹全碑并陰》³³⁾:

《碑》에서:「和得弑父」는 '德'을 '得'으로 썼는데, 글자 또한 다르다. 내가 일찍이 漢《一字石經》, 《論語》의 '何得之衰'를 보니, 今文으로 '得'을 '德'이라 썼다.

《史記·孟嘗君傳》에서 '齊湣王은 만족하지 않았다.'《索隱》에서 이르길:「하나를 얻으면 德이라 쓴다.湣王이 孟嘗君을 과견하고, 혼잣말로 자신은 덕이 없는 까닭이라 했다.《漢書·項羽傳》에서는 '吳나라는 공평하게 얻은 것이다.' 晉灼은 말하길: '德이라고도 쓴다.그렇다면 '得'과 '德'은 古字로 通用한다.

위 例에서 武億은 《一字石經》, 《論語》, 《漢書·項羽傳》 및 石刻에 근거하여 '德'과 '得' 古字가 通用됨을 考證했다.

例四 《漢故衛尉卿衡府君之碑》³⁴⁾:

背人. 背字는 《毛詩》에서 이르기를: 紂 나라성이지 邨라 부르지 않고, 또 邨라 쓰기도 한다. 碑에서 卩 을 줄여 背라 썼는데, 바로 邨字이다. 蓼莪의 蓼儀에서는, 古字 蓼儀와 서로 통하는데, 이 또한 그 증거이다. 趙氏는 《金石錄》에서 漢人師傳과 다르다고 여겼는데, 또한 그러하지 않다.

例五 《嵩山太室神道石闕銘》³⁵⁾:

또 普字, 誠는 戒字이고, 崇은 嵩字이다. 顧氏는 嵩이라 기록했는데, 잘못된 것이다. 《說文》에는 崇字는 있으나, 嵩字는 없다. 徐騎省이 새로 덧붙인 字는 嵩이 있는데, 글자 주석에 따르면: 中_崇嵩, 高山이다. 형부가 山이고, 形부가 高이며 形부가 松이기도 하다. 韋昭《國語》 주석에서 말하길: 옛날에는 通用하였는데, 崇字는 息弓切이다.)

33)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授堂金石跋》卷之第二:《碑》云:「和得弑父,德作得文亦不同,予嘗推之漢《一字石經》,《論語》何得之衰,今文得作德.《史記·孟嘗君傳》,齊湣王不自得.《索隱》曰:得一作德,是湣王遣孟嘗君,自言己無德故也.《漢書·項羽傳》:吳爲公得,晉灼曰:或作德.然則得與德古字通也.」, p.29.

34) 翁方綱《兩漢金石記》卷12, 刊于《石刻史料新編》:「背人, 背字《毛詩》譜云: 自紂城而非謂之邨, 字又作邨. 碑省卩作背, 卽邨字也. 至于蓼莪之爲蓼儀, 則古字蓼儀相通, 此亦其一證. 趙氏《金石錄》以爲漢人師傳有異同. 亦不然也.」, p.7374.

35) 翁方綱《兩漢金石記》卷9, 刊于《石刻史料新編》:并卽普字, 誠卽戒字, 崇卽嵩字, 顧氏錄作嵩, 非也. 按《說文》有崇, 无嵩. 徐騎省新附字乃有嵩, 字注曰: 中_崇嵩, 高山也. 從山從高亦從松. 韋昭《國語》注云: 古通用, 崇字息弓切, p.7333.

3. 乾嘉金石學者 俗字造成的 具體的인 方式

歐昌俊·李海霞(2004)《六朝唐五代石刻俗字研究》에서는 俗字의 類型을 增減和改變筆劃類, 增減和改造部件以及部件移位類, 增減和改造形旁類, 減省和改變聲旁類, 草書楷化類, 字形同化類, 同音代替類, 全新創造類 등 8가지로 분류했다. 필획에서는 획수의 증가나 감소가 있으며, 部件에서도 증감과 구조의 위치변화가 있으며, 편방의 대체는 다시 표의성분의 대체와 표음성분의 대체로 세분되어 形, 聲旁의 편방수의 증감과 改造로 나눌 수 있고, 동음으로 대체된 俗字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張涌泉(1996)은 상술한 몇 가지 유형외에 ‘書寫變異’, ‘正字蛻變’, ‘異形借用’, ‘合文’을 추가로 분류했고, 俗字가 형성되는 과정중에 ‘類化’‘簡化’‘繁化’등의 세 가지 경향이 존재하며 이를 頓穽속자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³⁶⁾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두 책의 분류법인 8가지 유형과 張涌泉의 4가지 유형을 참고하여 乾嘉金石學者의 주요 俗字에 대한 類型 분석을 진행하였다.

1) 筆劃의 增繁

漢字 演變은 복잡한 것에서 간단하게 바뀌는 과정이지만 形近字를 구별하고 생소한 偏旁을 피하거나, 書寫習慣 및 字形 전체의 조화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漢字는 작은 범위내에서 일정한 筆劃이 增加한 俗字가 나타난다.

(1) 글자의 형상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筆劃을 늘인 俗字

예① 次: 𠂔

次, 《說文·欠部》: 次, 不前不精也. 從欠, 二聲. (次는 맨 앞은 아니고 가장 우수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欠으로 구성되고, 二가 발음을 나타낸다.) 《董洪達造像記》³⁷⁾: ‘次作 𠂔’. 次字를 𠂔字로 쓴 것은 聲符인 ‘二(𠂔)’에서 한 劃을 늘려

36) 정연실, 《敦煌本과 再雕本 『阿毗達磨大毘婆沙論』의 異體字》, 《中國言語研究》 제29집, p.260.

37)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 卷三, p.75.

ㄷ라 썼으며, 이렇게 씌으로써 左右가 더욱 균형이 잡히게 보인다.

예② 布: 布

布, 《說文·巾部》: 布, 帛織也. 從巾父聲.(布는 모시로 짠 것이다. 巾로 구성되고 父가 발음을 나타낸다.) 《董洪達造像記》38): '布作布'. 여기에서 聲符 '父' 影響을 받아 필획을 하나 덧붙여 布로 썼다. 이렇게 써서 左右가 더 균형 잡혀 보인다.

예③ 无: 无

无, 《說文·无部》: 无, 奇字無也. 通於元者.(无는 기이한 글자로 無이다. 元과 서로 의미가 통한다.) 无, 《說文·无部》: 无, 首无也. 從兒. 无象形. 凡无之屬皆從无.(无는 머리 비너이다. 兒로 구성되고, 无는 象形이다. 无 부에 속하는 한자는 모두 无의 의미를 따른다.) 《崇教寺辟支佛塔記跋尾》39): '无爲无'. 无를 无로 써서 左右가 더욱 균형 있게 보인다.

(2) 書寫者나 刻한 사람이 마음대로 필획을 늘려서 만든 俗字

예① 師: 師

師, 《說文·巾部》: 師, 二千五百人爲師. 從而從師.(師는 二千五百人爲師. 而로 구성되고 師로 구성되었다.) 《造丈八大像頌跋尾》40): '師作師'. 師를 師로 썼는데, 즉 卍 아래 가로 획을 더 첨가하였다.

예② 捨: 捨

捨, 《說文·扌部》: 捨, 釋也. 從手舍聲.(捨는 포기하다이다. 手로 구성되며 舍는 발음을 나타낸다.) 《造丈八大像頌跋尾》41): '捨作捨'. 舍에서 가로 획을 하나 더 첨가하여 捨라 썼다.

예③ 央: 央

央, 《說文·一部》: 央, 央中也. .(央은 중개를 의뢰하다는 뜻이다.)

38)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p.75.

39)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十三, p.335.

40)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p.74.

41)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p.74.

《造丈八大像頌跋尾》42) : '央作央' . 央에서 央 가로 획을 더 첨가했다.

2) 筆劃의 省略

漢字는 교제 수단으로써 실제 사용자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繁簡의 演變과정을 거쳐왔는데, 사람들은 書寫의 편리함을 위해서 字形에 대해 일정한 省略을 하였다.

예① 戊: 戍

戊, 《說文·戈部》: 戊, 中宮也. 象六甲五龍相拘絞也. (戊는 中宮이다. 六甲과 五龍이 서로 얽혀 있는 모양을 상형하였다.) 《御注道德經》43): 首載開元廿年十二月十四日勅, 末題開元廿六年歲次戊寅, 十月乙丑朔, 八日壬申奉勅建戊字少一撇. 여기에서 '戊'자는 '戍'로 一획을 줄여서 刻했다.

예② 廕: 廕

廕字는 《說文》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 글자는 당연히 广로 구성되며 尫은 발음을 나타낸다. 廕, 《說文·广部》: 廕, 石大也. 從广尫聲. (廕는 돌이 크다는 뜻이다. 广으로 구성되며, 尫는 발음을 나타낸다.) 《衛尉卿衡方碑》44): '廕'爲'廕'. 廕字는 12劃으로 書寫하고 조각하는데 불편하므로 廕字의 두개 廕을 생략하여 廕으로 써서, 2劃을 줄였다.

또 略字를 俗字로 간주한 例도 보이는데, 이를 俗字의 범위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略字란 복잡한 한자의 점이나 획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략하게 한 한자로, 45)이런 略字를 俗字와 비교해 볼 때 개념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속자도 略字와 같이 간결성을 요구하고 있고 略字의 예로 제시한 각주의 글자들도 송원 이래속자보(宋元以來俗字譜)속에 포함되어 있는 俗字들이므로 本稿에서는 筆劃을 줄여 만들어진 俗字의 개념속에 略字를 포함시켜 분류해보았다.

42)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p.74.

43)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六, p.160.

44)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一, p.18.

45)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 사전》: 「'舊'를 '旧'로 '學'을 '學'으로 '體'를 '体'로 '亂'을 '亂'으로 '會'를 '會'로 '國'을 '國'로 '對'를 '對'로 '壽'를 '壽'로 쓰는 경우로 正字와 상반되는 글자를 말한다.」, 서울: 삼성출판사, 1980.

예③ 廬: 廬

廬, 《說文·广部》:廬,寄也. 秋冬去. 春夏居. 從广盧聲.(廬는 의탁하다라는 뜻이다. 가을 겨울은 지나가고, 봄, 여름에 거주한다. 广으로 구성되고, 盧는 발음을 나타낸다.) 《廬江縣禁鐘題字》⁴⁶⁾:其書廬爲'廬'. 여기에서 廬는 廬의 略字로 俗字로 쓰였다.

예④ 靈: 𩇛

靈, 《說文·雨部》:靈, 霽聲. 靈靈或從巫.(靈은 발음을 나타낸다. 靈은 靈의 或體로 巫의 의미를 따른다.) 《集仙宮重建東嶽行祠記》⁴⁷⁾:碑書靈作'𩇛', 此俗字. 여기에서는 𩇛은 靈의 略字이며 俗字로 쓰였다.

예⑤ 國: 囯

國, 《說文·口部》:國,邦也. 從口從或.(國은 국가이다. 口로 구성되어 있고 或으로 구성되었다.) 《歷城縣千佛崖石刻五種》⁴⁸⁾: '囯'爲'國'. 에서 囯은 國의 略字이자 俗字로 代替되었다.

3) 部件의 增加

部件은 원래 자형의 기초위에 하나나 몇 개의 글자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한자의 形旁과 聲旁은 한자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따로 분리하여 논하였고, 여기서 지칭하는 構字 部件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形旁과 聲旁을 제외한 기타 構字 單位를 가르킨다.⁴⁹⁾

예① 休: 休

休, 《說文·亻部》:休,息止也. 從人依木.(休는 중지하다라는 뜻이다. 人과 依, 木으로 구성되었다.) 《司馬元興墓誌銘》⁵⁰⁾:休作'休'. 여기에서 休字아래에 ㄣ을

46)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二十, p.541.
 47)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九, p.498.
 48)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四, p.97.
 49) 歐昌俊, 李海霞, 《六朝唐五代石刻俗字研究》, p.102.

늘려서 더욱 안정감 있게 보인다.

예② 驃: 驃

驃, 《說文·馬部》: 驃, 黃馬發白色. 一曰白髦尾也. 從馬𠂔聲.(驃는 黃馬가 흰 빛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또 흰 꼬리를 말하기도 한다. 馬로 구성되었으며 𠂔는 발음을 나타낸다.) 《司馬元興墓誌銘》⁵¹⁾: 別體字驃作驃. 驃字의 右側에 部件 𠂔를 늘려서 驃字로 써서 驃字가 더 안정되고 균형 있게 보인다.

예③ 參: 參

參은 《說文》에 수록되지 않았다. 《仇公簪墓誌》⁵²⁾: 其書參爲參. 參의 下部 彡의 部件을 하나 늘려 𠂔으로 써서 더욱 안정감 있게 보인다.

예④ 微: 微

微, 《說文·彡部》: 微, 隱行也. 從彡𠂔聲.(微는 은밀한 행동을 뜻한다. 彡로 구성되었고, 𠂔는 발음을 나타낸다.) 微, 《說文·彡部》: 微, 幅이라는 뜻이다. 一曰三糾繩也. 從糸微省聲.(微, 幅也. 일설에는 세 겹으로 끈 새끼라고도 한다. 糸으로 구성되었고 微는 발음이 생략되었다.) 《九成宮泉銘》⁵³⁾: 丹微作丹微. 微字에서 聲符 𠂔중의 几를 糸로 部件이 추가되었다.

위의 예는 글자 形體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部件을 추가된 경우이다.

4) 部件의 感省

예① 喪: 喪

喪, 《說文·口部》: 喪, 亡也. 從哭亡. 亡亦聲.(喪은 죽다라는 뜻이다. 哭와 亡으로 구성되었다. 亡은 또한 발음을 나타낸다.) 《仇公簪墓誌》⁵⁴⁾: ‘喪爲喪’. 이 중 形

50)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授堂金石跋》, 《金石一跋》卷之第三, p.54.

51)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授堂金石跋》, 《金石一跋》卷之第三, p.54.

52)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十四, p.370.

53) 王昶, 《金石萃編》第二冊, 卷四十三.

54)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十四, p.370.

符인 哭字중 口部件을 人으로 바꾸어 1劃을 줄였다. 이로써 書寫와 刻의 편리함을 꾀했다.

5) 偏旁易位

漢字는 篆書에서 隸書, 隸書에서 楷書로 변하기까지 字形구조가 조금씩 고정되었는데, 偏旁의 위치가 달라지면 다른 글자가 된다. 李文仲은 《字鑑》 卷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召字 形符가 좌측에 있으면 叨가 되고, 含字의 聲符가 우측으로 가면 吟가 되므로, 글자의 획이 조금만 바뀌어도 別字가 된다.”⁵⁵⁾ 이처럼 실제로 수많은 俗字는 偏旁易位의 方式을 통해 만들어졌다.

예① 𦉰: 𦉱

𦉰, 《說文·瓜部》: 𦉰, 𦉱也. 從瓜失聲. 詩曰. 𦉰絲瓜𦉰. (𦉰는 오이이다. 瓜로 구성되었고 失는 발음을 나타낸다. 시경에서는 “자손이 많고 집안이 번성한다”라고 하였다.) 《亳州錄事參軍馮本紀孝碑》⁵⁶⁾: 碑書𦉰 作‘𦉱’. 𦉰字의 左形右聲의 위치를 바꾸어 𦉱字로 썼다.

예② 敦: 𦉱

敦, 《說文·攴部》: 敦, 怒也. 詆也. 一曰誰何也. 從攴 𦉱聲. (敦은 분노하다라는 뜻이다. 나무라다라는 뜻이다. 일설에는 누구라고도 한다. 攴로 구성되었고 𦉱는 발음을 나타낸다.), 《亳州錄事參軍馮本紀孝碑》⁵⁷⁾: ‘敦作 𦉱’, 皆別體. 敦字의 左聲右形구조를 上下구조로 바꾸어 原字의 形符와 聲符의 뜻을 더 분명히 하였다.

예③ 泉: 洎

泉, 《說文·灬部》: 泉, 水原也. 象水流成川形. 凡泉之屬皆從泉. (泉은 물의 근원이다. 물이 흘러서 하천이 된 모양을 상형하였다. 泉부에 속하는 한자는 모두 泉의 의미를 따른다.) 《李氏遷先塋記》⁵⁸⁾: ‘泉卽洎字, ‘水當在左旁, 變文居下, 여기

55) 李文仲, 《字鑑》, 「召字從形在左則爲叨, 含字以聲在右則爲吟, 字書稍改, 則爲別字.」, p.28.

56)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 卷五, p.138.

57)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 卷五, p.138.

58)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 卷七, p.181.

서는 泉이 泊의 俗字로 쓰였는데, 이는 水旁을 白字의 아래에 쓴 比類이다.

6) 形旁의 增減과 改造

형성자중에서 뜻을 표시하는 부분을 義符라하고, 또 形旁이라 칭하며 字音을 표시하는 부분을 聲符라 하며 또 聲旁이라고 한다. 다음은 乾嘉金石學者들의 著作에서 보이는 形旁을 增減하고 改造해서 형성된 俗字의 예이다.

(1) 形旁의 增加

예① 漂: 灹

漂, 《說文·水部》: 漂, 浮也. 從水, 票聲.(漂는 뜨다라는 뜻이다. 水로 구성되었고, 票는 발음을 나타낸다.) 《高平縣石裏村造橋碑》59): 漂作灹, 여기서 聲符票의 우측에 水旁을 늘렸는데, 이로써 漂字를 더욱 균형 잡히고 보기 좋게 했다.

예② 標: 櫛

標, 《說文·木部》: 標, 木杪末也. 從木, 票聲.(標는 나무의 끝이라는 뜻이다. 木으로 구성되고, 票는 발음을 나타낸다.) 《魏靈藏, 薛法紹造釋迦像記》60): 別體字標作櫛. 北魏에서 隋, 唐에 이르기까지 前後數百年동안 標字 右側에 木部首를 넣어 櫛로 썼는데, 標字가 더 안정되고 균형있게 보인다.

예③ 痛: 瘳

痛, 《說文·疒部》: 痛, 病也. 從疒, 甬聲.(痛은 아프다라는 뜻이다. 疒으로 구성되고, 甬은 발음을 나타낸다.) 《魏靈藏, 薛法紹造釋迦像記》61): 痛作瘳. 이 중 心旁을 늘려서 痛을 瘳으로 썼다.

예④ 鹿: 麕

59)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p.83.

60)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授堂金石跋》, 《金石一跋》卷之第三, p.62.

61)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授堂金石跋》, 《金石一跋》卷之第三, p.62.

鹿, 《說文·鹿部》:鹿,鹿獸也.象頭角四足之形.鳥鹿足相比.從比.凡鹿之屬皆從鹿.(鹿은 사슴이다. 머리, 뿔, 네 다리의 모양을 상형하였다. 새와 사슴은 다리가 서로 가깝다. 그래서 比로 구성되었다. 鹿부에 속하는 한자는 모두 鹿의 의미를 따른다.) 《魏靈藏, 薛法紹造釋迦像記》 62)에서 '鹿作麤', 여기서 鹿을 麤으로 써서, '金'旁을 더하여, 상형인 '鹿'字를 左形右聲의 '麤'자로 바꾸어 쓴 것이다.

예⑤ 荆:璠

荆, 《說文·刀部》:荆, 罰罪也. 從刀井易曰. 井者法也.(荆은 벌을 주다라는 뜻이다. 刀와 井으로 구성되며 易曰. 井은 법이라는 뜻이다.) 《魏靈藏, 薛法紹造釋迦像記》 63)'荆'作璠'. 여기서 王旁을 첨가해 글자가 더욱 안정되게 보인다.

예⑥ 迢:逦

迢, 《說文》에 수록되지 않았다. 이 글자는 당연히 形符가 辵이고, 聲符는 召이다. 《九成宮泉銘》 64): 迢遍作逦遍, 別體字. 迢字를 逦字로 써서 辵旁을 늘렸다.

예⑦ 驃:驃

驃, 《說文·馬部》:驃, 黃馬發白色. 一曰白髦尾也. 從馬𠂔聲.(驃은 黃馬가 흰 빛을 드러낸다. 또 흰 꼬리를 말하기도 한다. 馬로 구성되었으며 𠂔는 발음을 나타낸다.) 《司馬元興墓誌銘》 65): 別體字驃作驃'. 驃字를 驃字로 馬旁을 늘렸다.

예⑧ 克:剋

克, 《說文·儿部》:克, 肩也. 象屋下刻木之形. 凡克之屬皆從克.(克은 임무를 맡다라는 뜻이다. 집 아래의 刻木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克符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克의 의미를 따른다.) 《司馬元興墓誌銘》 66):'克'作剋. 여기서 克字에 儿旁을 늘렸다.

예⑨ 附:付

62)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 《授堂金石跋》, 《金石一跋》 卷之第三, p.62.
 63)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 《授堂金石跋》, 《金石一跋》 卷之第三, p.62.
 64) 王昶 《金石萃編》 第二冊, 卷四十三.
 65)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 《授堂金石跋》, 《金石一跋》 卷之第三, p.54.
 66)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 《授堂金石跋》, 《金石一跋》 卷之第三, p.54.

附, 《說文·阜部》: 附, 附婁. 小土山也. 從 卩 聲.(附는 婁山을 뜻한다. 작은 토산이다. 卩로 구성되었고 付는 발음을 나타낸다.) 付, 《說文·亻部》: “付, 予也. 從 寸 持 物 亻 對 人.(付는 주다라는 뜻이다. 寸으로 구성되었고 물건을 쥐고 사람을 대하다라는 뜻이다.)” 《歐陽率更小楷千文》 67): “附與付古通用.”

(2) 形旁的 減省

이는 形旁을 늘여 만든 俗體字와 상반된 개념으로, 形旁을 생략한다는 것은 글자의 意符를 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생략된 부분이 글자의 形旁이나 혹은 形旁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뜻한다.

예① 讚: 贊

讚은 《說文》에 수록되지 않았다. 贊, 《說文·貝部》: 贊, 見也. 從 貝 從 𠄎.(贊은 보다라는 뜻이다. 貝으로 구성되었고 𠄎으로 구성되었다.) 《白石神君碑》 68): 碑以幽讚爲幽贊. 讚의 形旁인 ‘言’을 생략하여, 贊으로 쓴 것이다.

예② 煥: 奐

奐, 《說文·大部》: 奐, 取奐也. 一曰大也. 從 升 𠄎 省 聲.(奐은 많다는 의미이다. 일설에는 크다고도 한다. 升과 𠄎으로 구성되었고 발음은 생략되었다.)煥은 《說文》에 수록되지 않았다. 《重修府學教養碑》 69): ‘煥乃奐之俗體. 煥과 奐은 자음이 유사하고 자형의 연관성이 존재하며, 의미적 관련성도 가지므로 形旁的 생략이나, 동음에 의한 글자의 차용으로도 볼 수 있다.

예③ 慄: 栗

栗, 《說文·木部》: “栗, 古文 栗. 從 二 栗. (栗은 古文으로 栗이다. 두 개의 栗으로 구성되었다.) 慄는 《說文》에 수록되지 않았다. 《衛尉卿衡方碑》 70): 《碑》又以寬慄爲寬栗. 慄와 栗 역시 자음이 유사하고 자형의 연관성이 존재

67) 翁方綱, 《蘇齋題跋》卷上, p.4.

68)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一, p.27.

69)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十八, p.477.

70)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一, p.18.

하며, 의미적 관련성도 가지므로 𠄎에서 形符 𠄎 을 생략했다.

예④ 邵:召

邵, 《說文· 卩 部》: 邵, 晉邑也. 從邑召聲.(邵는 진읍이라는 뜻이다. 邑으로 구성되었고, 召는 발음을 나타낸다.) 召, 《說文· 口部》: 召, 誨也. 從口刀聲.(召는 부르다라는 뜻이다. 口로 구성되었고, 刀는 발음을 나타낸다.) 《衛尉卿衡方碑》 71): '邵虎'爲'召虎'. 邵와 召는 자음이 유사하고 자형의 연관성이 존재하며, 의미적 관련성도 가지므로 形符 卩 을 생략했다.

예⑤ 𠄎: 矩

𠄎, 《說文· 木部》: 𠄎, 巨或從木矢. 矢者其中正也.(𠄎는 巨의 或體로 木과 矢으로 구성되어 있다. 矢는 가운데 있다.) 矩는 《說文》에 수록되지 않았다. 《似𠄎等題名》 72): '𠄎', 古'矩'字. 𠄎과 矩는 자음이 유사하고 자형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글자들이며, 이 글자들 역시 形符의 생략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동음에 의한 글자의 차용으로도 볼 수 있다.

(3) 形旁의 改變

① 形旁의 뜻이 相近해서 混用

소위 形旁을 바꾼다는 것은 漢字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바꾸는 것으로 原字의 形旁을 다른 形旁으로 代替한 것이다. 形旁이 나타내는 뜻 부분이 비슷해서 混用된 偏旁으로는 '水'와 '火', '人'과 '彳', '艸'과 '竹'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① 潤: 潤

潤, 《說文· 氵部》: 潤, 水曰潤. 從水潤聲.(潤은 물이 습기 찬 것을 이른다. 水로 구성되었으며, 潤은 발음을 나타낸다.) 《滎陽太守元寧造象記》 73): 潤爲潤. 이 중 '潤'을 潤으로 썼는데, 이것은 形符가 '水'인 '潤'을 形符가 '火'인 글자로 바꾸어 潤이라 쓴 것이다.

71)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一, p.18.

72)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十五, p.399.

73) 畢沅, 《中州金石記》卷一, 刊于《續修四庫全書· 史部 金石類912》, p.623.

또 形符 亻旁과 彳旁은 자주 混用되어 俗字로 쓰이는데, 먼저 彳旁이 亻旁으로 바뀐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예② 德: 德

德, 《說文·亻部》: '德, 升也. 從彳 惇聲.(德은 높이다이다. 彳로 구성되었고, 惇은 발음을 나타낸다.)' 《高平縣石裏村造橋碑》⁷⁴: '德作 德'.

예③ 徒: 徒

徒, 《說文·彳部》: '徒, 步行也. 從彳 土聲.(徒는 걸어서 가다이다. 彳으로 구성되었고, 土는 발음을 나타낸다.)' 《董洪達造像記》⁷⁵: '徒作 徒'.

예④ 彼: 彼

彼, 《說文·彳部》: '彼, 往有所加也. 從彳 皮聲.(彼는 가는 데 더함이 있다라는 뜻이다. 彳로 구성되었고, 皮는 발음을 나타낸다.)' 《董洪達造像記》⁷⁶: '彼 作 彼'

예⑤ 後: 後

後, 《說文·彳部》: '後, 遲也. 從彳 夂聲.(後는 늦다라는 뜻이다. 彳로 구성되었고, 夂와 攴로 구성되었다.)' 《董洪達造像記》⁷⁷: '後作 後'.

위의 예는 모두 形符인 彳旁을 亻旁으로 바꾸었고, 이와 相反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⑥ 儒: 儒

儒, 《說文·亻部》: '儒, 柔也. 術士之稱.(儒는 부드럽다라는 뜻이다. 선비를 칭한다.)' 《兗公之頌》⁷⁸: '碑書儒作 儒'.

예⑦ 儀: 儀

儀, 《說文·彳部》: '儀, 度也. 從人 義聲(儀는 의식을 뜻한다. 人으로 구성되었고, 義는 발음을 나타낸다.)' 《王双虎造像記》⁷⁹: '儀作 儀'.

74)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p.83.

75)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p.75.

76)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p.75.

77)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p.75.

78)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六, p.165.

79)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授堂金石跋》, 《授堂金石文字續跋》卷二, p.208.

예⑧ 像: 像

像: 《說文·部》: 像, 侶也. 從人象聲.(像是 비슷하다라는 뜻이다. 人으로 구성되었고, 象은 발음을 나타낸다.) 《造丈八大像頌跋尾》80): '像' 作'像'.

예⑨ 楷: 楷

楷, 《說文·木部》: 楷, 木也. 孔子冢蓋樹之者. 從木, 皆聲.(楷는 나무이다. 孔子무덤은 나무로 덮여있다. 木으로 구성되었고, 皆는 발음을 나타낸다.) 楷는 《說文》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扌가 形符이고 皆가 聲符인 것은 확실하다. 《裴鏡民碑》81): 裴楷作裴楷. 여기에서 形符가 '木'인 楷를 形符가 手인 '楷'로 바꿔 썼다. 이는 또한 形近換用으로 敦煌卷子중에서 形旁이 形近하여 바꾼 예 중에 자주 보인다.

② 단순한 形旁의 改變

예① 媿: 媿

媿는 《說文》에 收錄되지 않았다. 媿: 《說文·土部》: 媿, 濁也. 從土后聲.(媿는 혼탁하다라는 뜻이다. 土로 구성되었고, 后는 발음을 나타낸다.) 《歐陽率更小楷千文》82): 此帖內以媿爲媿.

예② 研: 妍

研, 《說文·石部》: 研, 礪也. 從石开聲.(研은 탐구하다라는 의미이다. 石으로 구성되었고, 开는 발음을 나타낸다.) 妍: 《說文·女部》: 妍, 技也. 從女开聲. 讀若研. 一曰慧也. 一曰安也.(妍은 재능이란 뜻이다. 女로 구성되었고 开는 발음을 나타낸다. 研과 같이 발음한다. 총명하다라고 하기도 한다. 편안하다라고 하기도 한다.) 《歐陽率更小楷千文》83): '以研爲妍.' 研의 形符인 石은 의미상 공통점은 없지만 女로 대체되었다.

예③ 瞿: 瞿

瞿: 《說文·目部》: 瞿, 隹隹之視也. 從隹矍. 矍亦聲. 凡瞿之屬皆從瞿. 讀若章

80)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p.74.

81) 王昶, 《金石萃編》第二冊, 卷四十四, 《唐四》.

82) 翁方綱, 《蘇齋題跋》卷上, p.4.

83) 翁方綱, 《蘇齋題跋》卷上, p.4.

句之句. 又音衢.(瞿은 놀라서 보다라는 뜻이다. 佳과 瞿로 이루어져 있다. 瞿은 또한 발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瞿부에 속하는 한자는 모두 瞿의 의미를 따른다. 章句의 句와 같이 발음한다. 또 衢의 음이 있다.) 翟, 《說文·羽部》: 翟, 山雉也. 尾長. 從羽從佳.(翟은 산 꿩을 뜻한다. 꼬리는 길다. 翟로 구성되었고 佳으로 구성되었다.) 《歐陽率更小楷千文》⁸⁴⁾: 以瞿爲翟. 瞿의 瞿와 翟의 翟은 모두 形符이지만 의미상 어떤 공통점도 없으므로 단순한 形符의 改造로 볼 수 있다.

예④ 波: 彼

波, 《說文·氵部》: 波, 水涌流也. 從水皮聲.(波는 물이 분출하라는 뜻이다. 水로 구성되었고 皮는 발음을 나타낸다.) 《伏波將軍石永興等造象記》⁸⁵⁾: 其別體字波作彼. 形符인 氵을 亻으로 대체하여 彼으로 썼다.

예⑤ 縣: 敷

縣, 《說文·糸部》: 縣, 繫也. 從系持(縣은 묶다라는 뜻이다. 糸로 구성되었고 持를 가진다.) 《伏波將軍石永興等造象記》⁸⁶⁾: 縣作敷. 여기에서도 縣의 形符인 糸를 攴로 대체했다.

예⑥ 璠: 播

璠, 《說文·王部》: 璠, 璠與. 魯之寶玉. 從王番聲.(璠은 옥이다. 魯의 보석이다. 王으로 구성되고, 番은 발음을 나타낸다.) 播, 《說文·扌部》: 播, 種也. 從手番聲.(播는 파종하라는 뜻이다. 手로 구성되었고, 番은 발음을 나타낸다.) 《司馬景和墓誌銘》⁸⁷⁾: 別體字璠作播. 形符인 王을 扌으로 바꾸어 형성하였다.

7) 聲旁的 改變

한자의 形旁에는 形旁을 늘이거나 줄여서 만든 속자, 또 形旁을 改造해 만든 俗字등으로 그 例는 다양하게 보이고 있다. 乾嘉金石學者の 著作에서는 聲旁을 늘

84) 翁方綱, 《蘇齋題跋》卷上, p.4.

85) 嚴可均, 《鐵橋金石記》卷一, 刊于《石刻史料新編25》, p.19313.

86) 嚴可均, 《鐵橋金石記》卷一, 刊于《石刻史料新編25》, p.19313.

87)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授堂金石跋》, 《金石一跋》卷之第三, p.57.

여 만든 속자는 드물게 보이며, 또한 聲旁을 바꾸어 만든 俗字도 보이지만, 그 수량은 매우 적은편이다. 이는 漢字의 대부분이 形聲字이기 때문이며 글자마다 고유음의 音을 가지고 있으므로 聲旁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聲旁을 생략한다면 읽을 수 없으므로 聲旁을 줄여서 만든 속자가 존재하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예① 穎:頌

穎, 《說文》에 수록되지 않았다. 당연히 形符는 頁이고, 聲符는 穎이다.頌, 《說文·頁部》:頌, 頭也. 從頁元聲.(頌은 처음이라는 뜻이다. 頁로 구성되었고, 元은 발음을 나타낸다.) 《司馬元興墓誌銘》88):別體字‘穎作頌’. 여기에서 穎과 元이 音近하고, 元이 穎에 비해서 3劃이 적으므로 書寫의 간편함을 위해 만들어진 俗字이다. 이는 原字의 表音부분인 聲符筆劃이 많으므로 ‘頌’字로 改造했다는 의미이다.

예② 祐:祐

祐, 《說文·示部》:祐, 助也. 從示右聲.(祐는 돕다라는 뜻이다. 示로 구성되었고, 右는 발음을 나타낸다.)祐, 《說文·示部》:祐, 上諱.(祐는 이름의 첫 글자를 피휘하다라는 의미이다.) 《歐陽率更小楷千文》89):以祐爲祐. 祐의 聲符인 右가 古로 바꾸어 祐로 썼다.

예④ 宴:宴

宴, 《說文·宀部》:宴, 安也. 從宀晏聲.(宴은 편안하다라는 뜻이다. 宀로 구성되었고 晏은 발음을 나타낸다.) 《充公之頌》90):‘宴作宴’, 亦異文.. 聲符인 晏에서 宀를 두 개 더 첨가하였다.

8) 同音代替

同音代替는 필획이 간단한 글자로 필획이 복잡한 동음자를 代替하는 것을 말하며 假借라고도 한다. 漢代의 竹簡에 이런 종류의 글자가 많이 보이며, 특히 西漢

88)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 《授堂金石跋》, 《金石一跋》 卷之第三, p.54.

89) 翁方綱, 《蘇齋題跋》 卷上, p.4.

90)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 卷六, p.165.

初年 銀雀山漢簡에 이러한 글자가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身不治不能自葆(몸의 병이 낫지 않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다.)’이 중에서 ‘葆’字는 ‘保’字를 대체한 것이며, ‘事備而后動(준비한 후에 움직인다)’에서 ‘后’字는 ‘後’字를 대체한 것이고, 또 ‘功其不備(공을 갖추지 못하다)’에서 ‘攻’대신 ‘功’등으로 쓴 예가 여기에 속한다. 91)

예① 區: 壘

區, 《說文·匚部》: 區, 踣區. 臧隱也. 從品在匚中. 品. 衆也. 豈俱切.(區는 평탄하지 않다이다. 감추다라는 뜻이다. 품으로 구성되었고 匚가운데에 위치했다. 품은 많다라는 뜻이다. 豈俱切이다.), 壘는 《說文》에 수록되지 않았다. 《玉篇·土部》: 壘, 烏侯切, 墓也.(壘는 烏侯切으로, 무덤이라는 뜻이다.) ‘壘’字가 다른 훈인 ‘豈俱切’이 있다고 여겼는데, 字典에는 실리지 않은 것 같다. 《滎陽太守元寧造象記》92): 至寫區爲壘. 여기에서 區와 壘 두 글자는 자음과 자형의 연관성이 있지만,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글자는 동음자를 차용하거나 假借에 의해 만들어진 俗字이다.

예② 漁: 魚

魚, 《說文·魚部》: 魚, 水蟲也. 象形. 魚尾與燕尾相侶.(魚는 물에서 사는 동물로 象形字이다. 물고기 꼬리와 제비 꼬리는 서로 친구로 삼는다.), 漁: 《說文·彳部》: 從灑, 水. 漁篆文灑從魚.(形符는 灑, 水이고 漁는 篆文인 灑로 魚의 의미를 따른다.) 《司馬景和墓誌銘》93): ‘漁作魚’. 이 두 글자 역시 동음에 의한 글자의 차용으로 볼 수 있다.

예③ 得: 德

得, 《說文·彳部》: 得, 行有所得也. 從彳, 得聲.(得은 걸어가는데 得이 있다. 彳으로 구성되어 있고, 得은 발음을 나타낸다.) 德, 《說文·彳部》: 德, 升也. 從彳, 德聲.(德은 올라가다라는 뜻이다. 彳으로 구성되었고 德은 발음을 나타낸다.)

91) 歐昌俊, 李海霞, 《六朝唐五代石刻俗字研究》, p.194.

92) 畢沅, 《中州金石記》卷一, 刊于《續修四庫全書·史部 金石類912》, p.623.

93) 武愷撰, 高敏, 袁祖亮校点《授堂金石跋》, 《金石一跋》卷之第三, p.57.

《漢郃陽令曹全碑并陰》94): '得'與'德'古字通也. 이 두 글자는 자형과 의미의 상관성은 없으나 동음자를 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예④ 謙: 嘽: 慊

謙, 《說文·言部》: 謙, 敬也. 從言兼聲. (謙은 공경의 의미이다. 言으로 구성되었고 兼은 발음을 나타낸다.) 嘽, 《說文·口部》: 嘽, 口有所銜也. 從口兼聲. (嘽은 입속에 재갈을 문뜻이다. 口로 구성되었고, 兼은 발음을 나타낸다.) 慊, 《說文·心部》: 慊, 慊疑也. 從心兼聲. (慊은 의심하디의 뜻이다. 心으로 구성되었고, 兼은 발음을 나타낸다.) 《謙卦碑跋尾》95): 蓋謙, 嘽, 慊三字古皆通用也. 이 세 글자는 동일한 성부인 兼을 사용했으므로, 동음자를 차용한 것이다.

예⑤ 訟: 頌: 誦

訟, 《說文·言部》: 從言公聲, 一曰歌訟. (言으로 구성되었고, 公은 발음을 나타낸다. 일설에는 찬양하다라는 뜻이다.) 頌, 《說文·頁部》: 頌, 覓也. 從覓公聲. (頌은 칭송하다라는 의미이다. 覓으로 구성되었고, 公은 발음을 나타낸다.) 誦, 《說文·言部》: 誦, 諷也. 從言甬聲. (誦은 외우다의 뜻이다. 言으로 구성되었고, 甬은 발음을 나타낸다.) 《造丈八大像頌跋尾》96): 訟, 頌, 誦三文互通矣. 이 세 글자는 의미적 관련성도 있고 자음이 유사하므로 동음에 의한 차용으로 볼 수 있다.

예⑥ 元: 遠

元, 《說文·一部》: 元. 始也. 從一兀聲. (元은 시작하다라는 뜻이다. 一로 구성되었고 兀은 발음을 나타낸다.) 遠, 《說文·辵部》: 遠, 遼也. 從辵袁聲. (遠은 멀다라는 뜻이다. 辵으로 구성되었고 袁은 발음을 나타낸다.) 《造石像碑文》97): 然云仰之彌元, 元, 遠也. 元和 遠도 자형의 연관성은 없지만 자음이 유사하므로 동음자에 속한다.

4. 結論

94)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点《授堂金石跋》卷之第二, p.29.

95)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p.191.

96) 錢大昕, 《潛研堂金石文跋尾》卷三, p.74.

97) 武億, 《儂師金石遺文補泉》卷二, 刊于《續修四庫全書·史部金石類913》, pp.149-150.

건가시기의小學연구는 考證學을 하기 위한 治學方法의 일부로써 先導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考證學 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98) 건가 이후에 石刻의 출토가 더욱 많아지면서 적지 않은 금석학 저작들이 등장하였는데 金石碑刻文字는 經史와 서로 관계가 밀접하여 古書를 교감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金石文獻에 대한 고증은 표면적으로는 문자에 대한 단순한 考證이지만 傳統古文獻에 대한 정리 및 연구에 있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부분 金石文獻에 대한 연구는 史料的 가치에 주력하여 왔는데 본稿에서는 乾嘉金石學者의 著作에 보이는 大量的 俗字를 대상으로 그들의 연구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石刻別體字와 正字간의 具體的인 考證의 例, 當代의 俗字를 考證한 例, 古代文獻을 이용한 石刻資料의 別字, 通用字를 考證한 例 등으로 俗字에 대한 연구방법을 살펴보고, 또한 俗字造成에 있어 具體的인 方式을 8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筆劃의 增加, 筆劃을 줄여 만든 俗字, 部件의 增加, 形旁의 增減과 改造, 聲旁字形을 줄여서 만든 俗字, 形旁의 增減, 同音 대체 등으로 분류하여 그 字例를 분석하였다. 위의 예로부터 乾嘉金石學者의 著作에서 보이는 속자의 상황은 비교적 複雜하고 그 形式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陳文和, 《嘉定錢大昕全集》,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7.
 王昶, 《金石萃編》, 北京: 中國書店, 1985.
 武億撰, 高敏, 袁祖亮校點《授堂金石跋》, 《金石一跋》,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3.
 武億, 《偃師金石遺文補錄》, 刊于《續修四庫全書·史部·金石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畢沅, 《中州金石記》, 刊于《續修四庫全書·史部·金石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嚴可均, 《鐵橋金石跋》, 刊于《石刻史料新編》,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翁方綱, 《兩漢金石記》, 刊于《石刻史料新編》,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李文仲, 《字鑑》, 上海: 商務印書館, 1936.

98) 漆永祥, 《乾嘉考據學研究》, p.184.

- 翁方綱, 《蘇齋題跋》, 上海: 商務印書館, 1936.
-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80.
- 嚴可均, 《鐵橋金石記》, 刊于《石刻史料新編25》,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 畢沅, 《中州金石記》, 刊于《續修四庫全書·史部 金石類91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黃公渚, 《兩漢金石文撰評注》, 香港: 太平書局, 1966.
- 歐昌俊, 李海霞, 《六朝唐五代石刻俗字研究》, 成都: 巴蜀書社, 2004.
- 段玉裁, 《說文解字》, 臺北: 書銘出版公司, 1997.
- 漆永祥, 《乾嘉考據學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 정연실, 《敦煌本과 再雕本 『阿毗達磨大毘婆沙論』의 異體字》, 《中國言語研究》2009. 7.
- 張涌泉, 《試論漢語俗字研究的意義》, 《中國社會科學》, 1996.

〈中文提要〉

金石文獻具有重要的研究价值。本文以乾嘉金石學者著作爲例, 闡述了他們的俗字研究的情形: 石刻別体字和正字間的具體考證之例, 根据石刻資料考證當代俗字之例, 利用古代文獻考證石刻資料之別字, 通用字之例。又論述了乾嘉金石學者對俗字研究的具体方式: 筆劃之增繁, 筆劃之省略, 部件之增加, 形旁之增減和改造, 聲旁之改造, 形旁之增減, 同音代替等八個方面來討論。

乾嘉金石學者在他們的著作中, 對石刻俗字在傳統語文研究中的重要作用, 《說文解字》的諸多義例, 文字學史上的諸多重要人物和重要書籍等多有精彩論述。通過本論文可以認識石刻文獻上的俗字形体演變。

關鍵詞 : 乾嘉考據學, 俗字, 俗体字, 金石文獻, 墓志 考辨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0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